

# 전라·제주권 광역문화재단협의회,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4개 단체

전라·제주권 광역문화재단협의회(대표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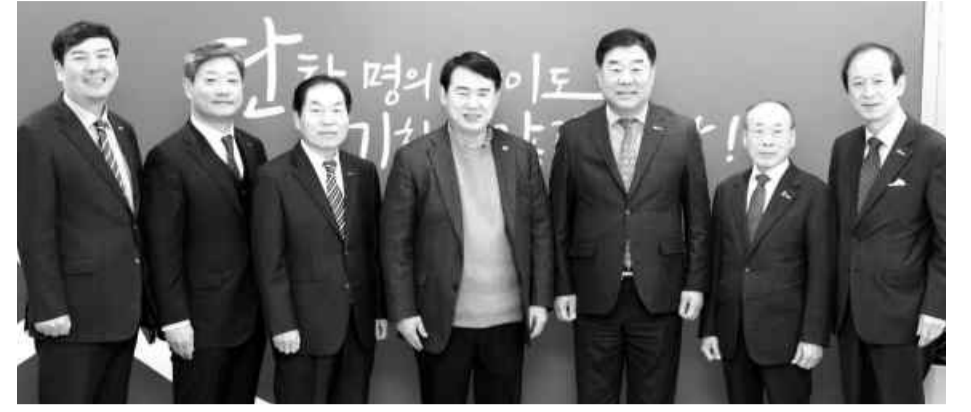
광주문화재단을 비롯해 전라남도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등 전라·제주권 광역문화재단 협의회 소속 4개 재단 대표들은 지난 20일 전북 전주의 전북문화관광재단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해 출생해 지역문화정책 제안, 지역 예술인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

단체를 제외한 고향 등 관심 지역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이정선 시교육감과 간담회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광주 전남회장 임경준)는 2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이정선 교육감과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현안 과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경준 광주전남회장을 비롯해 광주시교육청 납품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과제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구매제도 적극 활용 ▲가구 품목 공사 계약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광주 전남회장 임경준)는 2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이정선 교육감과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현안 과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경준 광주전남회장을 비롯해 광주시교육청 납품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과제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구매제도 적극 활용 ▲가구 품목 공사 계약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독도사랑 광주포럼, 일본 '독도의 날' 조례 규탄 결의대회

(사)독도사랑 광주포럼은 22일 오후 1시 북구 우산근린공원 광장에서 회원 및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의 '독도의 날' 촉구 및 만행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



로 독도 역사를 왜곡 조작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일본의 도발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윤철호 사회평론 대표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재연임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제79차 정기총회를 열어 윤철호(사진) 현 회장을 3년 임기의 제5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회장은 49대, 50대에 이어 세 번째로 출협 회장을 맡게 됐다. 49대부터 9년간 출협을 이끄는 것으로, 이는 정진숙 전 회장(11년), 김창집 전 회장(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임기다.

윤 회장은 "산업환경이 격변함에 따라 출협의 역할이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출협이 출판계의 대표단체로서 행정력과 정치력을 강화하고 출판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 동신대, 기계설비협회 광주시·전남도회 감사패 증정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화·왼쪽)는 최근 대학 중앙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대한국계설비건설협회 광주시·전남도회 감사패 증정식'을 열었다. 동신대는 스마트건축기계설비 전문대가 양성과 학교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 단체 최봉호(왼쪽)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동신대 제공>

##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00 해 불똥만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날	55 SBS 10 뉴스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태풍의 신부 스페셜	15 푸르기 식사교실(재) 45 시간탐험대 다이노맨	30 고향이 보인다	
00 KBS 뉴스 12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12 MBC 뉴스 25 꼭두의 계절(재)	00 SBS 12뉴스 15 민방 네트워크 뉴스 30 희망TV 특별생방송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자 돕기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영상앨범 산(재) 3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00 KBS 뉴스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방과 후 능력력				
00 상상푸르기 푸다 2 15 줌비딩 3 30 매직펜던트 대모험 45 프라몬 원정대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둥실 문개공방 3(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특집 WE LIVE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	00 알쏭달쏭 개치! 티니핑 15 꼬마공룡 크앙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10 이 맛에 산다(재) 30 MBC 특별생방송 튀르키예-시리아에 희망을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50 특집 강한 소상공인(재)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태풍의 신부	05 생방송 연극복권 720+ 10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30 내 눈에 콩깍지	30 홍길동전		30 KBC 8 뉴스	
00 KBS 뉴스9	50 연모(재)	00 오늘부터 1인 솔로하우스	00 TV 동물농장 우리 같이 산다	
00 다큐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00 심야교과회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30 KBS 뉴스라인	00 연중 플러스	20 문화콘서트 난장		
10 9중시사극(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통합뉴스룸 ET(재)	30 광주MBC 보드 스페셜 4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나이트라인 30 kbc특선 생명의 신비, 지구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번개맨과 안전맨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8:00 생방송 워킹해결단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00 정글 플래닛
07:15 하프와 친구들	12:10 EBS 교육진단	19:30 한국의 둘레길
07:45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3:00 글로벌 아바 찾아 삼만리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00 똥동맹 유치원	13:50 명의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미니특공대 바이레인저스	14:45 한국의 둘레길	<내 인생의 피에스타 콜롬비아 -알짜만 퀵! 레드마크 기행>
08:35 한글용사 아이야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고고다노 우리동네공룡(재)	15:35 푸르기 천사들	<불이 오나 봄 4부 할아버지의 시금치밭>
09:05 최고! 호기심딱지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극한직업
09:20 시뮬	16:15 페퍼 피그	22:45 싱어즈: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09:35 타타와 쿠마	16:25 한글용사 아이야(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6:40 똥동맹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3일(음 2월 4일 壬子)	☎ 010-9790-8237
<p>36년생 주변의 충고를 수용한다면 해결점을 찾는다. 48년생 상호간의 심리 저변에서 갈등하는 대국이다. 60년생 기왕이면 겉모습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2년생 소신껏 진행하면 상응하는 결과가 주어지리라. 84년생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하면 모두 이루어지겠다. 96년생 중등적인 판단이었다면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1, 84</p>	<p>42년생 관점을 달리한다면 기회로 연결시킬 수 있는 소지가 크다. 54년생 희망을 상징하는 일곱 색깔의 무지개가 걸려 있다. 66년생 인정받을 수도 있는 기회이다. 78년생 처음부터 아예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90년생 기한을 초과한다면 큰일 나게 될 것이다. 02년생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망설이지 말라. 행운의 숫자 : 45, 86</p>
<p>37년생 예기치 못한 이유로도 따르리라. 49년생 발전적인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61년생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치가 급상승하게 된다. 73년생 지리멸렬한 소강상태를 뒤로하고 생산적인 판국으로 접어들겠다. 85년생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행한다면 불만족은 없을 것이다. 97년생 생 확대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행운의 숫자 : 06, 58</p>	<p>43년생 임점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55년생 근분이 되는 일부러 똑바로 하지 않으면 연쇄적인 패인이 붙는다. 67년생 막연하다면 공허할 수밖에 없으니 구체적인 필요가 있는 나라. 79년생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참된 말은 귀에 걸리느니라. 91년생 기운이 흥흥하니 꿈도 꾸지 말라. 03년생 결실의 의외로 미진하겠다. 행운의 숫자 : 27, 80</p>
<p>38년생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현태이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겠다. 50년생 점차 확대되어 가는 길목으로 향한다. 62년생 원인이 파악된다면 지체 없이 처리하라. 74년생 있을 때 잘 지켜야지 없어도 나쁜 공허하리라. 86년생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 맹점이 있다. 98년생 지속적이어야만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2, 65</p>	<p>44년생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때다. 56년생 지금이야말로 깔끔하게 보완하기에 지극히 적절한 시기이다. 68년생 너무 나 크고 충격적인 일이라서 아무 경향이 없을 것이다. 80년생 계가 이뤄지지 않아서 종국적으로는 연결되지 못한다. 92년생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정답이다. 04년생 변화에 따르는 상실감이 크겠다. 행운의 숫자 : 04, 69</p>
<p>39년생 상응하는 관계 속에서 돌출하는 성향에 주의해야 한다. 51년생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안배를 해야겠다. 63년생 결코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 분명해 있으니라. 75년생 옛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며, 구관이 명관이다. 87년생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99년생 넉넉하게 마련해주는 것이 알차다. 행운의 숫자 : 13, 53</p>	<p>45년생 자제하지 않으면 다급하게 추락할 수도 있다. 57년생 준비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돌아가느니라. 69년생 진중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옳다. 81년생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명확히 이행해야 말짱이 없다. 93년생 의지하기가 충분한 보루가 될 수도 있겠다. 05년생 기쁨을 나누는 행운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49, 64</p>
<p>40년생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만 삭여야 하는 정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52년생 소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진귀한 날이다. 64년생 평상시에 바라고 있었던 마음가짐으로 판단해야 틀림없겠다. 76년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형국에 놓여 있다. 88년생 결코 형식에 얽매어서는 아니 된다. 00년생 행하면 능히 감당하리라. 행운의 숫자 : 12, 57</p>	<p>34년생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고비를 넘길 수 있다. 46년생 관건이 될 만한 핵심 가치에 주목하라. 58년생 마음을 어지럽히는 바가 있을 것이니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아니 된다. 70년생 충분한 보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2년생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낫다. 94년생 오는 손님 막지 말고 가는 손님 잡지 말지이다. 행운의 숫자 : 31, 77</p>
<p>41년생 사람의 마음이다 같을 수는 없음이니라. 53년생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끝맺음 만큼은 알찰 것이다. 65년생 열과 성을 다한다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판세이다. 77년생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89년생 경험을 살린다면 무난하게 타개할 수 있다. 01년생 초심이 머지않아 바뀔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7, 92</p>	<p>35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마당이다. 47년생 망심하고 있다면 연쇄적인 현상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59년생 귀가 솔깃해질 일이 생겼다. 71년생 현저한 행운도 없지만 대고 없이 무난하도다. 83년생 참된 뜻을 알게 되는 진귀한 계기가 조성된다. 95년생 지나치다만 부족함만 못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07, 54</p>